

경제

587곳...인구대비 6대 광역시중 최다 광주는 편의점 전성시대

편의점 전성시대다. 도심은 물론 동네 구석까지, 불과 10여 년전만 해도 곳곳에 보이던 '구멍가게'를 밀어내고 온통 편의점 천지다. 광주 동구에는 한 사거리 안쪽에 편의점 세 곳이 마주보고 있는 곳도 있다.

26일 (사)한국편의점협회에 따르면 광주의 편의점 수는 개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제외하고 2월 말 현재 587곳에 이른다. 인구 수 대비로 전국에서 네번째로 편의점 수가 많고 6대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많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편의점 1곳 대비 인구 수는 제주(2261), 강원(2692), 서울(2831)에 이어 광주가 2988명이다. 전국 평균 3523명에 비하면 훨씬 적다.

편의점, 무한진화=현금인출, 택배, 세탁물 수거, 이젠 베이커리까지. 한 마디로 안되는 게 없다. 규모는 작지만 곳곳이 '생활속 백화점'이다. 편의점은 더 이상 간단한 식료품이나 생활용품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다. 수년 전 편의점에서 택배가 가능해 질 때만 해도 편의점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궁금했지만 최근에는 입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편의점이 선보이면서 차별화를 시도, 여러 모습의 매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GS25는 최근 동네 상권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슈퍼형 편의점', 학원가와 상가에서는 직접 빵을 구워 판매하는 '베이커리형 편의점'과 직접 원두커피를 내려 파는 '카페형 편의점' 등 여러 형태의 편의점을 내놨다.

편의점의 경우, '아제청과 존'을 갖춘 점포를 구성했다. 싱글족과 맞벌이 부부를 겨냥해 소(小)포장 채소나 계절 과일을 판매한다. 이처럼 빵은 전문 베이커리에서, 신선채소는 시장이나 마트에서 구입한다는 공식마저 깨지고 있다.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업주조차 판매상품의 생산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대형마트와 달리 편의점에 지역 농특산물의 입점이 가능하지 않은 것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다. 편의점에 고용된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에 머물뿐이다.

지난 17일 경기도와 웨비마르트는 점포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택배·현금 인출·세탁물 수거·베이커리까지

입지 특성 살려 '생활속 백화점' 무한 진화

매출액 대부분 본사로...지역경제 도움 안돼

충장로에서 카페를 겸한 편의점을 운영중인 서모(45)씨는 "샌드위치와 스콘 등을 직접 조리해 팔다 보니 집객효과가 커지는 것을 느낀다"며 "큰 폭으로 매출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 빵집 등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단골 확보가 쉬워졌다"고 말했다.

지역경제와 연관, '글쎄' = 포화상태에 달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광주지역 편의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매출액 대부분이 매일 본사로 올라가는 등 운영 구조상의 문제는 사실상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편의점 상품공급은 편의점 업주가 업체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면 업체 물류창고에서 새벽에 필요한 상품들을 배달해

사업과 지역특산품 판매 등을 약속한 '행복나눔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보광웨비마르 MOU'를 맺었다. 이 지역에서는 편의점 업체와 지자체 간 제휴는 없었다.

편의점 업체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큰 자금이나 경험 없이 점포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편의점은 나날이 늘어나지만 늘어난 수만급 지역민의 돈도 빠져나가고 있는 것.

서구에서 10년째 편의점을 운영한 이모(43)씨는 "운영방식은 직영과 위탁 등 종류가 많은데다 방법도 복잡해 사실상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방안은 본사에서 마음먹지 않는 한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입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택배·세탁물 수거·베이커리까지 편의점에서 안 되는 게 없다. 슈퍼형·베이커리형·카페형 편의점 등 형태도 다양하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한 편의점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농협, 전국 5대 거점에 물류센터

도매사업 강화...2020년까지 점유율 50%로 확대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 신용·경제 사업을 분리하는 구조개편작업을 계기로 '판매 중심의 농협'을 구현하기 위해 도매사업을 강화한다. 특히 호남권 등 전국에 5곳의 물류센터를 건립해 판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협은 26일 '농산물 도매사업 강화계획'을 발표, 현재 3조원 수준(도매 유통량의 22%)인 과일·채소 중심의 도매사업을 2020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해 도매유통량 점유율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산지유통활성화에 힘쓰는 결과로 현재 산지 농산물 유통량의 54%를 점유하고 있으나 농산물 소매유통 점유율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도매사업 강화를 통한 농산물 유통 효율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농협은 전국 단위의 농산물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산지와 소비자 간 계열화를 추진하고 도매전담 조직을 육성하며 대외마케팅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특히 농협은 수도권(안성), 호남, 영남(밀양), 강원, 제주 등 전국 5대 권역에 물류센터를 건립해 물류·저장기능 이외에도 소포장 등의 과정을 통해 외식사업 및 신선식품 시장으로

이동식 농협경제대표이사는 "전국 단위 물류센터가 구축되면 대규모 농산물의 저장, 가공, 소포장 및 분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 물류 효율화를 통해 29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또 도매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산지의 농·축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전속출하 회원으로 육성하는 등 계열화 체계를 구축해 농산물 유통단계를 현재 5~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농산물 유통비용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단계는 산지-산지유통인-도매시장-중간상인-소비자판매장 등이지만 앞으로 이를 산지-도매전담조직-소비자판매장으로 단순화해 직거래형 농산물 유통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농협은 대외통업체 공공사업을 작년말 2332억원에서 2020년엔 1조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현재 10억원 미만인 중소수퍼 및 편의점 공급규모도 2020년까지 각각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새마을금고 창립 48주년 이호상 본부장 대통령 표창



이호상(맨앞) 새마을금고연합회 광주전남본부장이 맹형규 행안부장관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지난 25일 서울 새마을금고연합회관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연합회 대의원·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8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호상 광주전남 지역본부장 등 새마을금고 육성·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165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이 수여됐다.

입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평당 300만원대 '여수 동양엔파트' 분양

지난해 5월 순천지역에서 성공리에 아파트 분양을 한 동양그룹의 동양메이저·건설이 이번엔 여수에서 총 357가구 규모의 '여수 동양엔파트'를 분양 중이다. <조감도>



'여수 동양엔파트'는 59.74㎡형 118가구, 84.88㎡형 239가구로 구성돼 있다. 현재 59.74㎡형은 분양을 마친 상태이며, 84.88㎡형도 분양 완료로 앞두고 있다. 여수 동양엔파트의 인기는 여수지역의 풍부한 개발 호재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2년 여수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개발이 활기를 띠면서 총 12조3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 아파트는 울촌산업단지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앞 왕복 4차선 17번 국도를 이용해 순천·조례·금당·연향지구와 광양 마동·황금지구, 여수 중심지로 이동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인근 산업단지의 임대 수요가 풍부해 임대사업자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분양가도 3.3㎡당 310만~350만

원으로 신규분양 아파트로는 최저가 수준이다. 또 외부 발코니 사시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동양엔파트는 7월 입주예정일로 계약 후 짧은 기간 내 입주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전세에서 내집 마련으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전액 무이자(30%), 잔금(60%)이며, 은행 용자는 분양가의 60%까지 가능하다. 분양문의는 1588-8675. /박정욱기자 jwpark@

'OB콜드라거' 돌풍

두달만에 2천만병 판매

오비맥주는 3월24일 내놓은 신제품 'OB콜드라거'가 출시 61일 만에 판매량 2000만병(330ml 1병 기준)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작년 여름 출시 79일 만에 2000만병을 돌파한 '카스 라이트'를 앞지르는 성적이다.

오비맥주는 카스와 OB 브랜드로 맥주 상수기인 여름에 업계 1위 자리를 공략할 계획이다.

장인수 영업총괄 부사장은 "풍부한 맛과 기술력으로 수도권, 광주 등지에서 고무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며 "OB 브랜드에 대한 향수까지 더해지면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

안택수 신보이시장 광주방문



안택수(68)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27일 광주를 방문한다. 안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신용보증기금 융자지원 확대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광주시 북구 첨단산단 내 글로벌광통신을 방문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박정욱기자 jwpark@

돼지고기 값 강세 7월까지 지속

구제역 여파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은 계속 오르고 한우 가격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가격동향은 오는 7월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26일 전망했다.

농경연은 이날 '축산관측'을 통해 돼지의 경우 구제역 여파로 어미돼지

수가 감소해 6월 사육 마릿수는 650만~660만마리로 감소한 뒤 이후 늘어난 것으로 예상되지만 출하 마릿수는 7월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한국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25%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욱이 최근 설문조사 결과 6~8월 국산 돼지고기 수요는 5월보다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관측돼 6~7월 돼지 지육 1kg 가격은 5월보다 강세인 7100~7400원(박피기준)이 될 것이라고 농경연은 밝혔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우 가격은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농경연에 따르면 구제역에 따른 매출분배도 불구하고 지난 3월1일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6.5% 증가한 288만마리였으며 6월에는 303만마리, 9월엔 304만마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비새는 아파트옥상·슬라브주택·빌라·공장의 희소식

국내최초 특허 제10-0986204호 슬라브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슬라브지붕누수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로가 최소 30%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이상 간다.
5. 장독대, 빨래건조대로도 사용할수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것보다 3~4배 더 잘마른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 완벽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리도 다시 뚫어서 물빠짐이 원활하다.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전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중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후

공장직영 / 완벽한시공 / 확실한S/A 보장, 전국 최다 시공팀 직접운영 시공을 원하시는 분

단 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방수시스템!

한능칼라강판지붕개량 061) 335-8842, 010-4024-4005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전문가 박만순의 상차림

- 눈, 코, 입을 동시에 즐겁게 하는, 즉석 불꽃구이
- 계절 야채 향암육수, 샤브샤브
- 산야초 효소, 오리요리
- 궁중요리, 표고 버섯탕
- 염도가 낮은, 밥도둑 젓갈 등

즉석 불꽃구이

월드덕 찜

한방오리구이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웨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 광주1등맛집 • 다담회 한국맛집 •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 우리은행 우리나라우리명가 • 광주은행 소호명가

“발효 효소”백초, 술순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월드덕 예약문의 062)671-2177,1177 (위치:봉선동 쌍용APT 사거리)

점심특선 天下一味 표고 버섯탕 10,000원